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며,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 주요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 점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 1. 12.(금) 07:3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F4 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한편, 참석자들은 금일 새벽 발표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태영과 채권단은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난 12.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CP 및 CD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PF-ABCP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차환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해외투자자들도 금번 사태를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타 부문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다만, 부동산 PF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주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경제 상황, 주요국 선거에 따른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 등 올 한해 예상되는 주요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들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최근 수출 개선세는 확대되는 반면, 내수는 둔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상호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F4 회의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을 공조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여러 기관이 협조하여 수행중인 거시건전성 정책(Macro prudential policy)을 보다 체계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hskim5495@korea.kr)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20)
		담당자	사무관 김기훈 (kkrmarine@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최영주 (02-759-4777)
		담당자	과 장 류창훈 (chryu@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정훈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신상주 (hipotes@fss.or.kr)